

# 이판과 사판은 결국 '한 판'



조계사에서 법문하는 종학스님(3월 27일)

-오늘날 승단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산중불교가 도시불교로 변하는 과정에 겪는 시행착오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계율문제는 말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 말 안 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서로 자신 없으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말을 안 하는 것이겠지요. 이판과 사판이 원용하고 자재하지 않으니 계율문제도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겁니다. 나는 엄격한 상벌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잣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잣대를 쓰지 않는 것이요. 종단이 제대로 유지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세간보다 훨씬 엄격한 상벌의 잣대를 종단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세속에서도 법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 하듯이..."

승풍이 제대로 진작 되기 위해서는 상벌의 규정도 확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학스님의 지론. 입만 열면 '즉심시불(卽心是佛)'을 말하는 승단이 스스로 마음에서 부처의 종자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제불보살과 역대조사의 가르침은 허황한 구두선일 뿐이라는 것이다. 종학스님은 또 종단이 정립(正立)되기 위해서는 자주성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며 기관의 예산 지원에만 눈독을 들이는 풍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든 지자체든 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 어느 단체보다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스님이 돈 때문에 공권력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일이 허다한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다. 자수성가(自手成家)란 말이 있듯 불교의 본래정신도 지극히 자주적인데 현대사회

에서는 스스로 기관에 예측되는 길을 찾아나간다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살아가는 양태는 한 순간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불교를 보는 시각도 변하고 불교도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갈수록 변화의 템포는 더 빨라지는 듯합니다.

"변화의 수레바퀴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굴러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굴러 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무상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56억만 년 뒤에 미륵불이 출현 할 것을 말씀하신 깨달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수행도 교화도 달라져야 합니다. 말로 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허깨비 놀음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을 이란 것은 실천을 동반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품을 바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만 있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는 불자가 아닙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부처는 자기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몸 밖에서 찾지 마라.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 성품이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다. 자비는 관음이요 보시는 대세지라고 부른다'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으로 표현하는 것,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인 것도 나누고 베푸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깨달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안으로도 덕성과 청정성을 회복하고 밖으로는 끝없이 베풀고 나누고 도와야 합니다. 모든 불자가 그대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되어서..."

-행자시절 은사하신 고향 스님에게 뺨을 많이 맞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많이 맞았어요. 허허. 그러나 그게 어디 미워서 때린 겁니까? 세상에서 짙어지고 온 상(相)들을 다 내려놓고 중노릇 잘 하라는 간절한 가르침이었지요. 당시는 동자(童子)들을 많이 길러 스님을 만들었어요. 스무 살이나 먹도록 세상맛을 보다가 들어 온 경우는 드물었고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했어요. 상이 차 있으니까요. 중이 되고 싶어서 은사스님께 두 번 찾아가서 뒤통수를 맞았고 세 번째 찾아가니 받아 주시더군요. 그리고 하심공부를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계를 받던 날 은사스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거울로 삼고 있어요. '개 오줌 싸고 가듯 하라. 중보고 중질 못한다. 법을 보이라'는 짧은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곧 집착을 갖지 말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뜻으로 구도일념으로 정진하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새길수록 큰 가르침이지요. 해학적이기도 하고..."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찾아오고 그걸 응케 알아차린 나무들은 잔치를 열듯 꽃을 피우고 잎을 띄웁니다. 관음사를 둘러싼 사방의 숲에도 그 정연한 질서로 한바탕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도 이사의 원용일 것이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anmail.net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38. 범패어장 벽은 장태남 대화상

범패는 불교의식음악으로 일명 범음(梵音), 어산(魚山), 인도(引濤)라고도 부른다. 절에서 주로 재나 불공을 올릴 때 부르는 소리로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 3대 음악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범패는 장단이 없는 단성 음율로서 재를 올릴 때 쓰는 음악이기 때문에 서양의 그레고리안 성가와 비슷하다.

1962년 문화재 법이 만들어지고, 64년 이 법이 실천되면서 불교의 범패가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 되었다. 이때 봉원사 박송암 스님과 김포 문수사 벽은 스님이 범패로서 지정을 받고, 전주 이재호 스님이 작법무로서, 응암동 정순경 스님이 도량장엄으로서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그런데 작법무와 도량장엄은

하지 아니하면 그 소리를 재보하기 힘들 정도로 자상한 음성을 가지고 있었다.

"스님, 어떻게 범패를 하셨습니까?"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 배운 점도 있지만 워낙 소리가 좋았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머니 자장가와 같거든. 그러니까 신라 때 월명 스님이 도솔가를 불러 하늘에 나타난 두 해를 없애고, 장보고가 중국 적산원에서 신라 범패를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영혼들을 구제 하였던 것이지."

"그러니까 범패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암 그렇고말고. 인도에서 나온 인도풍 범패는 그대로 인도(印度) 혹은 인도(引濤)라 하고, 중국에서 나온 것을 어산(魚山)

만들어 안채비, 바깥채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거든."

스님의 음성은 참으로 유현정화(幽玄淸和)하고 장인굴곡(張引屈曲)하여 의젓하고 그윽했으며, 유장하고 심오하였다.

나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 김포 문수암까지 여러 차례 간 일이 있다. 스님은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소생이 없어 아무래도 인연 있는 자식들을 데려다 길렀는데, 내가 갔을 때 여섯 명이나 되었다. 두 사람은 내가 주례를 서 주었는데, 미국에까지 가서 성공하여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고 있다.

"나는 가난 속에 내 목구멍도 살기 어려웠으나, 이렇게 여러 자식들을 길러 자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울타리도 되고 양념, 간장도 되고, 참으로 인생이 재미있어."

### 1964년 박송암 스님과 불교범패 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 스님 음성 청산에 흐르는 물과 같고 어머니 자장가와 같아

각각 한 분씩 지정이 되었는데, 범패는 두 사람이 지정된 것은 각각 그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송암 스님의 소리는 경기체와 비슷하고, 벽은 스님의 소리는 어산성을 많이 띠었다. 그래서 송암 스님의 소리는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비천성이 중심이고, 벽은 스님의 소리는 청산에 흐르는 물과 같아 조용조용 어머니 자장가와 같았다.

벽은 스님을 모시고 중국풍 불교정신문화원에서 교육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로 기억난다. 송암 스님은 여러 대학 강의를 맡아 전혀 시간을 내기 어려웠으므로 김포에 계시는 벽은 스님이 오셨는데, 한 번도 시간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도량석, 종성, 아랫저녁 예불문으로부터 재와 불공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교육하셨는데 조용히

이라 하며, 한국의 범패를 향풍(鄕風)이라 불러왔지." "우리나라 범패는 신라 때 진경 국사로 부터 비롯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그 분이 중국에 들어가 배워 왔으므로 그분의 음성은 처음에는 당풍(唐風)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각 지역에 퍼지면서 전라도 소리, 경상도 소리, 서울 소리 등 각기 달라졌거든. 마치 아리랑이 정선아리랑이 있고, 전라?경상도 아리랑이 있듯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랫역 사람은 맵고 짜게 먹으니까 맵고 짠 소리가 나고, 윗역 사람은 싱겁고 달게 먹으니까 싱겁고 달게 나오지. 그래서 서울대학교 한만영 교수는 범패는 단성이기 때문에 채보하기가 어렵다 하였는데, 그 분은 악보를

하고 꺾꺾 웃으시던 인상이 좀 처럼 가셔지지 않는다. 깨끗한 모습에 인간의 연륜들이 주름살 가운데 나타나 얼굴에 주름살이 많은데도 보기 싫지가 않다. 말씀도 조용조용, 행동도 조심조심, 땅을 밟으면 껌질까, 물건도 만지면 부서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오셨다.

단지 송암 스님처럼 범음회를 만들어 후배 양성을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셨다.

"제자복도 복이고 스승복도 복이야. 나는 박복하여 스승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제자조차 많이 잃거든. 그래, 많으나 적으나 모두가 팔자소관으로 생각해서 마음 편안히 살지, 하하하."

착어, 환촌, 유처, 청사, 종성, 탄배, 축원 소리가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 세계인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 캄보디아 왕실(정부지원) 압사라(Apsara)무용단 초청공연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도우의 공연 연혁**

- 2006년 쓰나미 피해 돕기 스리랑카 국립무용단 공연
- 2007년 부처님의 성지 돕기 위한 네팔국립무용단 공연
- 2008년 중국지진피해돕기 중국불교연합무용단 공연

• 이 공연을 초청 하고자 하는 사찰, 불교연합회, 단체기관 공연이 가능합니다.

압사라 댄스 민속무용  
12가지의 무용(공연 총 소요시간\_90분)

기간\_2009년 4월 15일~7월 15일(90일간)  
초청\_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도우  
(www.108.or.kr)  
후원\_캄보디아(정부/대사관/문화원)  
불교문화상조  
'환경·생명·문화'공동체/도우  
휴림생활건강(KT&G)  
담당자\_011-581-8851